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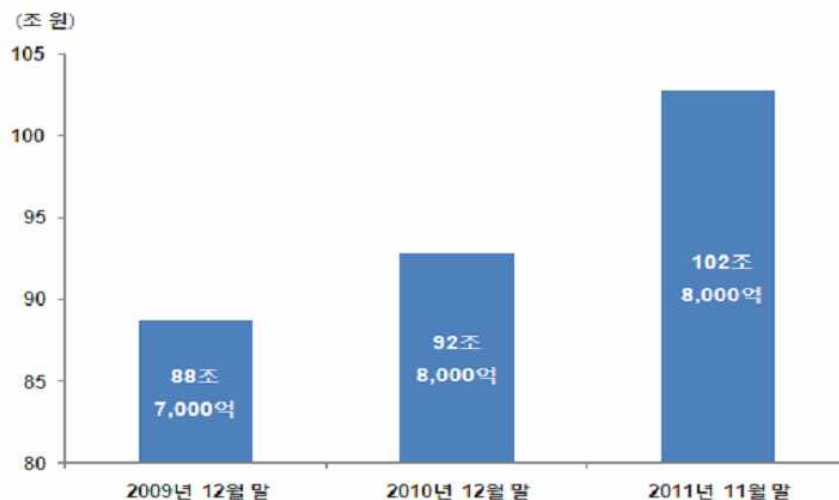
자영업자 대출, 100조 원 돌파

이혜은 연구원

■ 12월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, 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은행 기준으로 지난달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지난해 말 92조 8,000억 원에서 10% 증가한 102조 8,000억 원으로 나타남.

- 이는 올해 1/4~3/4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4.2%의 2.5배 수준이며, 자영업 대출이 한해 10조 원 증가한 것은 올해가 처음임.
-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하여 통상 가계부채 통계에서 제외되나, 실제로 가계부채에 가깝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음.
 - 자영업자가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그 빚이 고스란히 자영업자 가계의 빚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계부채임.
 - 올해 9월 말 가계부채 892조 5,000억 원에 10월 중 늘어난 가계대출 5조 7,000억 원, 자영업자 대출 102조 8,000억 원을 합치면 1,000조 원을 상회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.

〈그림 1〉 자영업자 대출 추이



■ 자영업자 대출급증은 취업난, 베이비붐 세대(1955~63년생) 은퇴자들의 생계형 창업과 은행들의 과당 경쟁이 맞물려 빚어낸 결과임.

-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66만 6,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 5,000명이 증가했으며, 2005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섬.
- 은행들도 이런 흐름에 편승해 소상공인네트워크론(국민은행), 소호V론(우리은행), 마이숍가맹점팩(신한은행) 등 신규 창업자를 겨냥한 신상품을 출시했으며, 대출보증을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을 확대함.
- 또한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이후 가계대출을 강하게 억제하자 일부 은행들이 대출증가 한도를 맞추기 위해 개인 신용, 주택담보대출로 빌리던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을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소호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함.

■ 내년에 내수침체가 심화될 경우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대출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‘뇌관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.

-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3/4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.08%로 가계대출 연체율 0.45%의 두 배를 넘었으며, 다른 은행들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/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추세임.
- 내년에 경제사정이 나빠질 경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더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, 자영업자들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임.
 -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가구주가 자영업자일 경우가 상용직일 경우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음.

(한국경제, 파이낸셜 뉴스 등, 12/18)